

# 꿇주린 호랑이

백인태 글·그림, 글로연, 2024



주제	질문과 생각을 나누며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작품의 특징을 활용하여 나를 표현하기
권장 차시	6차시
대상 학년	5~6학년
관련 주제어	나다움, 자아정체성, 호랑이, 자유와 순응, 생태전환
교육 과정 연계	국어 [6국05-05]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6국05-06]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미술	[6미01-04]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
작성	창원한들초등학교 박정윤 선생님

## ■ 도서 소개 (출판사 책 소개)

호랑이일까? 고양이일까? 어호옹! 옆에 있는 고양이에게 묻고 싶어진다. 너 사실 호랑이지?

두 개의 다른 얼굴이 마치 하나인 듯 정면으로 응시하는 표지가 눈길을 끈다. 『굶주린 호랑이』를 읽고 나면 옆에 있는 고양이를 자세히 보게 될 것이다. 혹시 정체를 숨기고 고양이인 척하는 호랑이는 아닐까? 하면서.

이 책은 숲을 호령하던 호랑이가 무자비한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오로지 살고자 도망친 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황량한 사막까지 내몰린 호랑이에게 먹을 거라곤 손톱만한 벌레뿐이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운 사막에서 입에 풀칠도 하지 못하며 굶주림에 시달리던 호랑이는 그만 쪼그라들고 쪼그라들었다. 호랑이로서의 위용은 온데간데 없이 골골거리는 모습을 보고 지나가던 나그네가 가엾게 여겨 집으로 데려간다. 이제 호랑이는 자신의 처지를 알아 귀엽게 골골거리는 고양이인 척하며 나그네의 집에 자신을 의탁하고 있다. 그러다 간혹 표호한다. 어호옹!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저마다의 깊이로 다가가는 이야기

책을 읽을 때는 웃기다. 굶주림에 쪼그라들어 고양이로 변하는 호랑이가 귀엽고 앙큼하며 단순하게 웃긴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책을 덮은 후에는 애잔하다. 고양이로 나그네의 집에서 배고픔 모르고 살고 있으나 숲속에서 군림하던 호랑이의 포효를 잊지 않고 있는, 그러나 그 웅장한 울음을 더는 낼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고양이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림책은 아이와 어른이라는 이중독자를 가진 매체다. 이 책은 아이들에겐 고양이를 바라보며 웃기는 상상을 한 이야기로 다가갈 것이며, 어른들에겐 애잔했던 과거의 어느 한 때 또는 지금 웅지를 펼치지 못한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지 않을까? 호랑이와 고양이, 그 둘을 하나의 존재로 엮어 단순하고 웃기지만 강렬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또 누군가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이중독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재미나고 묵직한 그림책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 ■ 학습 목표

- 등장인물이 겪은 일과 내용을 파악하며 읽고, 인상적인 장면을 소개할 수 있다.
- 작품과 작가에게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
- 그림의 특징을 탐색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 ■ 수업 준비

『굶주린 호랑이』는 읽는 이에 따라 다양한 층위로 해석될 수 있다. 숲의 왕이었던 호랑이가 녹록지 않은 현실에 적응하며 자신의 본성을 감추고 고양이로 살아가는 이야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 인간 중심 개발로 서식지가 파괴되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동물들의 이야기 등 다양하게 읽어낼 수도 있겠다. 학생들과 그림책을 찬찬히 읽으며 장면마다 무엇이 눈에 들어오는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생각을 나눠 보면 좋겠다. 학생들의 반응을 수용하며 작품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때 함께 읽기가 빛을 발한다. 작품의 내용과 장면 표현에서 궁금한 점, 작가의 의도를 질문하고 학생들의 삶과 연결하여 토론 주제를 끌어내어 이야기를 나눈다면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학급 상황이 허락한다면 이 책의 표현 방법인 디지털드로잉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로 자신을 표현하는 활동을 하는 것도 학생들에게 그림책이 의미있게 다가가게 할 것 같다.

## ■ 학습 과정

주요 활동		차시
읽기 전	<b>동기 유발</b> - 누구일까요? - 그림책과 만나기 - 질문 만들기 - 내용 예상하기	2차시
읽는 중	<b>그림책 읽기</b> - 면지와 속표지 읽기 - 내용 파악하며 읽기 - 그림책의 특징 찾기 <b>인상적인 장면 소개하기</b>	
읽은 후	<b>질문과 생각 나누기</b> - 궁금한 것 질문하기 - 생각 나누기 - 토론 주제 떠올리기 - 토론하기	2차시
	<b>나 표현하기</b> - 나를 동물로 표현하기 - 작품 소개하기	2차시

# 읽기 전

## 1. 동기 유발

### ■ 누구일까요?

- 반쪽 그림만 보고 누구를 그렸는지 생각해 봅시다.
-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 어떤 특징이 있나요?

예: 호랑이보다 고양이의 눈빛이 더 날카롭고 강렬해요.

둘 다 금색, 노란색, 주황색 선으로 털을 섬세하게 표현했어요.

호랑이와 고양이가 닮은 것 같은데 털의 길이와 색깔, 눈빛이 달라요.



예: 호랑이



예: 고양이

### ■ 그림 책과 만나기

- 표지에서 무엇이 보이나요?

예: 왼쪽에는 호랑이 얼굴 반쪽을, 오른쪽에는 고양이 얼굴 반쪽을 그렸어요.

- 그림책의 첫인상은 어떤가요? 표지 그림은 어떤 느낌인가요?

예: 검은 바탕에 호랑이와 고양이 얼굴이 크게 그려져 있어서 분위기를 압도하는 느낌이에요.

실제로는 호랑이 얼굴이 고양이보다 훨씬 클 텐데 고양이랑 크기를 비슷하게 그려서 흥미로워요.

Tip. 제목을 가리고 표지 그림으로 제목을 예상해 봐도 좋다. 그림에 어울리는 제목을 생각하다 보면 그림을 자세하게 살피게 되며 그림책에 호기심을 느낄 수 있다.

### ■ 질문 만들기

- 표지를 살펴보며 궁금한 것을 질문해 봅시다.

예: 호랑이와 고양이는 어떤 관계일까?

호랑이가 먹이를 먹지 못해서 굶주렸을까?

호랑이와 고양이 그림을 어떤 재료로 그렸을까?

### ■ 내용 예상하기

- 어떤 내용일지 예상해 봅시다.

예: 산속 굶주린 호랑이가 먹이가 부족하자 고양이로 변신해서 사람들이 사는 도시로 내려와요. 길고양이가 되어 사람들이 주는 먹이를 먹으며 적응해 가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Tip. 학생들이 자유롭게 내용을 상상할 수 있게 허용적인 분위기를 유도한다.



## 1. 그림책 읽기

### ■ 면지와 속표지 읽기

- 면지를 살펴봅시다. 무엇이 보이나요?  
예: 호랑이의 등이 크게 보이고 가운데 용이 그려져 있어요.  
검은 바탕에 호랑이 털 색깔이 밝은 초록색이에요.
- 속표지를 살펴봅시다. 무엇을 그린 것 같나요?  
예: 사막의 밤을 그려놓은 것 같아요.  
밤하늘의 오로라 같아요.
- 작가의 말을 읽어 봅시다.

### ■ 내용 파악하며 읽기

- 그림책을 함께 읽으며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 호랑이가 누워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예: 밤에 사막에 누워 있는 것 같아요.
- 호랑이 말고 어떤 동물이 보이나요?  
예: 여우, 토끼, 돼지, 흑염소, 고라니, 청설모, 비둘기 등
- 숲속의 왕으로 배불리 지내던 호랑이는 왜 숲을 떠났나요?  
예: 인간들이 집과 식량을 빼앗았기 때문이에요.  
인간들이 도시를 만들며 숲을 파괴해서 서식지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 호랑이의 등에 새겨진 무늬는 무엇인가요?  
예: 용이 그려져 있어요
- 인간들이 숲을 불태우고 서식지를 파괴하자 동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 동물들이 인간들과 불타는 숲을 피해 도망가요.  
호랑이는 어깨가 축 처진 채 불타는 숲을 멍하니 지켜보는 것 같아요.  
돼지는 도망가지 않고 인간들에 맞서며 항거하는 것 같아요. 돼지의 뒷모습이 좀 애처로워 보여요.
- 호랑이과 돼지의 태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 돼지는 혼자서라도 부당한 일에 당당히 맞서고, 호랑이는 어떻게 행동을 하지 못해요.
- 숲을 도망친 호랑이가 마침내 닿은 곳은 어디인가요?  
예: 인간들이 없는 사막 같아요.
- 먹잇감을 찾지 못한 배고픈 호랑이는 결국 어떤 먹이까지 먹게 되었나요?  
예: 예전 같았으면 거들떠도 보지 않았을 손톱만한 작은 벌레를 먹어요.
- 벌레를 먹으며 호랑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 숲속의 왕으로 군림하던 예전에 비하면 지금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비참하고 슬펐을 것 같아요.
- 굶주린 호랑이는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예: 점점 쪼그라들더니 고양이로 변했어요.
- 고양이로 변한 호랑이를 발견해서 집으로 데려간 사람은 누구인가요?  
예: 나그네예요.

- 나그네 덕분에 목숨을 건진 호랑이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예: 호랑이라는 정체를 숨기고 많이 먹지도 움직이지도 않고 그 집에 적응하며 살아가요.

- 마지막 장면, 나그네의 집에서 보이는 것들을 이야기해 봅시다.

예: 고양이가 된 호랑이가 '어호옹'이라고 울어요. 나그네의 침대에 동물 인형이 많아요.

나그네의 컴퓨터 바탕화면이 숲 사진인 것 같아요.

나그네가 입고 있는 셔츠에 용이 그려져 있고 'END'라고 적어놓고 마지막 장면이라는 걸 알려요.

Tip. 그림책의 그림은 글로 전하지 않은 많은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서사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림을 찬찬히 살펴 며 그림에서 보이는 것, 두드러진 색깔, 궁금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주제를 찾으려 애를 쓰기보다 그림을 찬찬히 함께 읽으며 다양하게 해석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 ■ 그림책의 특징 찾기

- 이 그림책에서 두드러진 색을 뽑는다면 어떤 색인가요?

예: 주황색, 녹색, 파란색 등 다양한 선명한 색상을 사용했어요.

곳곳에 보이는 여러 빛의 형광색이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 호랑이를 어떤 색으로 표현했나요?

예: 주황색, 분홍색과 노란색, 연두색, 파란색과 형광 노란색 등 장면마다 다르게 표현했어요.

- 작가는 이 장면들을 어떤 도구나 재료로 그렸을 것 같나요?

예: 색이 선명하고 진한 느낌이라 오일파스텔로 그린 것 같아요.

다양한 색을 쓴 걸 보니 유성펜과 마커로 그린 것 같아요.

색이 진하고 형광빛이 나는 걸 보니 포스터칼라로 그린 것 같아요.

- 작가는 디지털 기기(패드)로 장면들을 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패드에 그림을 그려본 적이 있나요?

예: 스마트폰에 그림그리는 앱을 설치해서 그림을 그려본 적이 있어요.

노트북의 그림판에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 미술 도구로 그린 그림과 디지털 기기에서 그린 그림에 차이가 느껴지나요?

예: 디지털 기기로 그렸다고 말을 안 했다면 몰랐을 것 같아요. 차이가 거의 없어 보여요.

디지털 기기로 그린 그림이 좀 더 선명한 것 같아요.

디지털 기기로 그린 그림이라 형광빛이 나는 색을 쉽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 2. 인상적인 장면 소개하기

### ■ 인상적인 장면 찾아 이야기 나누기

- 인상적이거나 궁금한 장면을 찾아 이야기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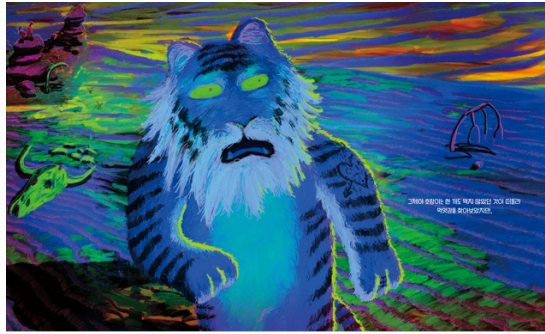
예:

인상적인 장면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자비한 인간들에게 집과 식량을 빼앗긴 호랑이의 축 처진 어깨가 안쓰러워요.</li> <li>·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숲을 파괴하는 장면을 보니 동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li> </ul>



· 인간들의 공격을 피해 도망가는 동물들 사이에 줄행랑치는 호랑이의 모습을 잘 표현했어요.

· 위급한 상황인데 호랑이의 표정이 웃겨요.



· 호랑이를 주로 주황색으로 표현하는데 이 장면에서 파란색과 형광색으로 그려서 인상적이에요.

· 신선하고 신비한 분위기예요. 갈 곳 없고 배고픈 호랑이의 상황을 닷선 색깔로 표현한 것 같아요.



· 호랑이는 고양이로 되었고, 원래 호랑이 등에 새겨진 용무늬가 나그네의 옷에 그려진 게 재미있어 보여요.

· 나그네의 침대 위에 놓인 동물 인형들이 호랑이와 함께 숲에 살던 동물인 것 같아요.

## 읽은 후

### 1. 질문과 생각 나누기 [활동지1] 활용

#### ■ 궁금한 것 질문하기

- 책 내용과 그림, 작가에게 궁금한 것을 질문해 봅시다.

예:

- 숲에서 도망친 다른 동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작은 벌레를 잡아먹을 때 호랑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 호랑이는 계속 나그네 집에서 살아갈까?
- 나그네는 고양이가 사실 호랑이었다는 걸 알고 있을까?
- 호랑이는 행복할까? 호랑이는 자신의 현재 모습과 삶에 만족할까?
- 내가 호랑이라면 현재 처지와 모습에 만족할까?
- 고양이는 호랑이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호랑이로 돌아갈 수 있을까?
- 그림책 작가는 자신을 나그네로 표현한 걸까?
- 그림책 작가는 자신을 '방구석 굶주린 호랑'이라고 소개했는데, 『굶주린 호랑이』는 자신의 이야기일까?

## ■ 생각 나누기

- 모두 친구들과 질문을 골라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해 봅시다.

예:

우리 모두가 고른 질문	호랑이는 자신의 현재 모습과 삶에 만족할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몸은 편하겠지만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숲속 다른 동물들을 지배하던 강한 본성을 숨기고 고양이로 살아가려니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li><li>·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만족할 것 같아요. 혼자 힘으로 숲과 집을 되찾을 수도 없잖아요? 굶어 죽지 않고 편한 집에서 살아가는 것에 적응하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최선인 것 같아요.</li></ul>	

## ■ 토론 주제 떠올리기

- 내 삶과 연결지어 토론 주제를 떠올려 봅시다.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인간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은?</li><li>·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주변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진짜 나의 모습을 숨기는 게 바람직할까?</li><li>· 적응하기 위해 타고난 성향이나 성격을 바꿔야 할까?</li><li>· 나의 현재 모습과 내가 바라는 모습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두 모습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li></ul>
--

## ■ 토론하기

- 모두 친구들과 토론 주제를 선정해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 봅시다.

예:

우리 모두의 토론 주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나를 바꾸는 게 바람직할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격대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고 좋은 관계를 만들려면 타고난 성격을 바꿀 필요도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엔 소심하고 내성적이라 먼저 말을 걸지 못해 새학기가 시작될 때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바꾸고 싶어서 용기를 내어 먼저 인사하고 말을 걸면서 친구를 빨리 사귄 수 있었습니다.</li><li>·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타고난 성격을 바꾸려면 너무 힘듭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해 주는 사람들과 잘 지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li></ul>	

Tip. 질문하고 이야기 나누며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허용적인 분위기를 유도한다.

## 2. 나 표현하기 【활동지2】활용

### ■ 나를 동물로 표현하기

- 『굶주린 호랑이』의 작가는 작가 소개에서 자신을 ‘굶주린 호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 여러분은 자신을 동물에 비유한다면 어떤 동물이 떠오르나요?
- 나를 닮은 동물, 내가 좋아하는 동물,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를 표현할 동물 등 나를 나타낼 만한 동물을 자유롭게



떠올려 봅시다.

- 나를 표현할 동물을 골라 『뽕주린 호랑이』의 표지처럼 그려 봅시다.
-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디지털드로잉으로 표현해 봅시다.

### ■ 작품 소개하기

- 내 작품에 이름을 붙이고, 소개해 봅시다.
- 갤러리워크로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 잘 만든 작품, 인상적인 작품 등을 찾아 칭찬해 봅시다.

예:



저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토끼, 감춰진 실제 모습은 사자로 표현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저를 착하고 순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족이나 친한 사람과 있을 때는 까불고 가끔 과격하기 때문에 토끼 반, 사자 반으로 그렸습니다.



저는 저를 닮은 동물로 고양이와 사자를 골랐습니다. 귀엽고 도도하다는 소리를 가끔 듣고 외모도 고양이 상에 가까운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한 번 화가 나면 사자처럼 무섭기도 합니다. 제 성격이나 모습이 다양한 것 같아서 무지갯빛으로 표현했습니다.



저는 왼쪽은 현재 나의 모습을, 오른쪽은 미래 나의 모습을 강아지에 비유해서 그렸습니다. 왼쪽은 귀엽게, 오른쪽은 당당한 분위기로 표현했습니다.



왼쪽 면은 제 얼굴을, 오른쪽에는 제가 좋아하는 우리 집 고양이를 그렸어요. 반려묘와 오랫동안 키우다 보니 가끔 고양이가 사람 같고, 제가 고양이 같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Tip.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드로잉뿐 아니라 스크래치페이퍼 등 다양한 표현 도구를 활용해도 좋다. 학급 상황과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유연하게 활동해 보자.



【활동지1】

읽은 후 활동

## 질문과 생각 나누기

이름 :

▣ 책 내용과 그림, 작가에게 궁금한 것을 질문해 봅시다.

<hr/> <hr/> <hr/>
-------------------

▣ 모둠 친구들과 질문을 골라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모둠이 고른 질문	
나의 생각	
모둠 친구들의 생각	

▣ 모둠 친구들과 질문을 골라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모둠이 고른 질문	

읽은 후 활동

## 나 표현하기

이름 :

▣ 나를 나타낼 만한 동물을 떠올려 『굶주린 호랑이』 표지처럼 얼굴 왼쪽과 오른쪽 면을 다르게 표현하고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이유도 써 봅시다.